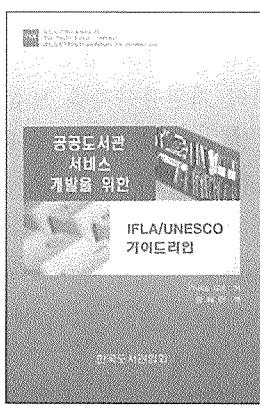


## 서평

##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IFLA, 장혜란 역, 한국도서관협회,  
2002, 신국판, 134쪽  
ISBN 89-7678-055-0, 10,000원

공공도서관은 우리 인류의 교육, 문화, 정보를 위한 살아 있는 힘이며, 인간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행복을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유네스코의 신념을 표명한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1949년 처음 선포되어

1994년까지 두 차례 개정된 이 선언문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원칙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http://www.ifla.org/VII/s8/unesco/manif.htm>)되어 전 세계 공공도서관 발전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기 쉬운 유네스코의 이념을 어떻게 하면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까.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인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이다.

이번에 발행된 책은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협회연맹)가 1986년에 펴낸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의 개정판으로 15년 만의 일이다.

1973년 발행된 IFLA의 『공공도서관 기준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과 최근에 발행된 책자를 비교해 보면 제목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73년판 『공공도서관 기준』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목적은 동일하고 변경 요인은 개

발의 속도에 있으므로 각 국가별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973년판에는 장서크기, 개관시간, 직원의 수, 건물면적과 같은 일련의 수량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1983년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른 견해가 나타나 있다.

‘요구와 자원이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날 때에는 서비스에 대한 공통 기준이 마련될 수 없다. 우리는 규칙보다는 일반적 응용이 가능하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얻은 경험에 근거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파거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수준에 대한 권장안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는 각 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공공도서관이 지향할 목표는 제시하겠으나 구체적인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번 개정판에서도 같은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즉 각 장(△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목적△법적 재정적 토대△이용자 요구 충족△장서구축△인적자원△경영과 마케팅)마다 세계 각 국가의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례를 들어주고 보다 상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해줌으로써 개개 도서관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구할 것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公立圖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에도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수치 없는 기준이 우리와 같은 도서관 환경에(인원 감축, 자료비 삭감, 민간 위탁. 우리는 언제쯤 이런 저차원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기준을 거론할 수 있을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씁쓸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이 책은 이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역사회에 요구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돋기 위한 도구입니다’라고 밝힌 책자의 서문처럼 보다 나은 도서관의 미래를 위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박경아 : 한국도서관협회 팀장)